

## '수도권 그린리모델링 거점센터' 본격 활동개시

이현경 기자 | 승인 2021.03.26 17:52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2개 센터 운영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인재 양성 기대



26일 '수도권 그린리모델링 거점센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 이현경 기자] 수도권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거점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수도권 그린리모델링 거점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그린리모델링 거점센터 발대식'이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로에 위치한 중앙대학교에서 열렸다. 수도권 지역 그린리모델링 거점센터는 중앙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2개 센터다.

이날 발대식에는 센터장인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와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의 관련 기관 책임자와 실무진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축사 △환영사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소개 △중앙대학교 센터소개 △성균관대학교 센터소개 △그린리모델링 경진대회 안내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철 교수

이날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역거점으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역거점 센터로서 제 역할을 다해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효율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두삼 교수

이어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지역거점 센터가 그린리모델링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센터는 대학기계설비산업연구원, 대한설비공학회, 대학건축사협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청연그룹,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산·학·연 연계로 컨소시엄 조직을 구성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성균관대학교 센터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망라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 전문 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어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자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5개 지역에 6개의 거점센터를 선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기계설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경** 기자